

“품질이 생명” 지역환원 앞장서는 66년 남도 술 명가

보해양조



◇술 명문 도가 외길 역사 66년=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 출시 러시에 20대 소비자들은 ‘열일(열심히 일하는) 보해양조’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해양조(주)가 저도주 시장까지 진출하게 된 계기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한잔의 술에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기 위해 사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 CEO로서 3대째 이어지는 보해양조(주)를 이끌며, 국내 주류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임지선 대표이사는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적 변화가 음주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술자리에서 각자 마시고 싶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술을 두려워하는 소비자부터 애주가까지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승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대표는 ‘품질은 보해의 생명이자 양심’이라는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을 이어오면서 소비자와의 스킨십 강화와 직원들의 행복 추구 등 주류 명문 도가로서의 전통과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미래사에서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직원·소비자 행복은 좋은 술 원동력=특히 지역 내에서 66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보해양조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소비자의 성원에 늘 보답하는 게 회사의 도덕적 책임이자 소임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소비자와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깊다.

주류회사 하면 떠오르는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탈피해 수평적인 조직 문화 구축과 여성 채용의 기회를 확대한 것도 임 대표 취임 이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임 대표는 부장, 과장 등의 직급 체계에서 프로, 파트장 등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조한 직급으로 바꾸고,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상으로 자유롭게 대표에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 건넬 정도로 소통의 문이 열려 있다. 또한 직원들의 옷차림도 딱딱한 정장보다 캐주얼한 복장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근무해야 주류 시장의 흐름도 잘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 대표는 지역내 중장년층 여성들의 재취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이 많다. 지난 3월에 설립한 ‘님과 함께’는 지역 주부사원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대한 사례로 지역민들의 환대를 받고 있다. 현재 ‘님과 함께’ 직원들은 광주·전남지역 대형 마트, 2차 업소에서 판촉활동 등 소비자 밀착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 사회적 책임 주력=이외에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소비자 마음 잡기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개그우먼 박나래와 함께 ‘임새주 사랑의 병뚜껑 캠페인’을 전개해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새주를 마신 후, 모금함에 병뚜껑을 반납하면 개당 100원씩 적립돼 지역의 소외된 이웃



장성에 위치한 보해양조 주조장 전경.

〈보해양조 제공〉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앞장·유연한 조직 ‘좋은 술’ 원동력 ‘100원 적립 캠페인’ 지역민 호응…꾸준한 장학금·봉사활동

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2017년 1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사다난 했던 연말을 맞아 보해양조(주)에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소비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임새주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매주 사회공헌 활동 일지를 작성할 만

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보해양조(주)는 2013년 설립된 사회공헌본부를 필두로 보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지역 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보해양조(주)는 1981년부터 보해장학회를 설립해 보해양조(주)역사의 절반이 넘는 세월 동안 총 36억원의 장학금을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원하며 좋은 술을 만드는 것만큼 소비자와의 상생을 중시해 왔다. 목포 상권 중심에 있는 보해양조(주) 본사 1층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한 것도 지역 사회가 활성화 돼야 보해양조(주)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실린한 일이었다.

보해양조(주) 임직원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젊은 임새 부라더’도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았다. 현재는 21기를 모집할 정도로 탄탄한 조직으로 자리 잡았고, 총 500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손발이 돼주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애정과 섬김의 자세가 좋은 술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임 대표는 “수도권에서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늘 보해양조(주)의 출발 지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진출에서 나아가 전국구,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주류 회사로 성장한 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새주를 한 병, 두 병 즐겨주셨던 지역 소비자들의 힘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지역에 어려운 일에 발벗고 나서는 임 대표의 솔선수범 자세가 매주 직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는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다. 특히 전라남북도에서는 자원봉사 우수기업으로 손꼽을 만큼 보해양조(주)의 활약상이 널리 알려져 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와 같은 대규모의 봉사활동부터 우범 지역 순찰, 상권 환경 정화 활동, 사랑의 밥차 행사, 독거노인 명절 선물 증정과 같은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지역민들 속에 녹아 들어가는 밀착 경영을 펼치고 있다.

임 대표는 “작년과 올해, 이색적인 제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바람 나는 기업 문화 만들기엔 직원 모두가 동참하고,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인생에 대한 애정으로 66년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며 좋은 술을 만드는 데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 제공〉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임지선(가운데) 보해양조(주) 대표이사는 지난해 ‘광주 국제 아트페어’ 조직위원장을 맡아 지역작가 지원과 미술 저변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8월 24일 임 대표가 광주 국제 아트페어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

〈보해양조 제공〉



전력거래소 정부 3.0 우수기관 선정

함께해요! 정부 3.0
달성해요! 전력수급 안정

전력수급 정보를 국민과

개방·공유하고

1300개 전력시장 회원사와

소통·협력하여

맞춤형 전력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전력수급을 달성하겠습니다

smart KPX 전력거래소

